

[ 바둑 ]

“장고는 싫다” ‘속기 바람’ 분다

〈長考〉

‘지루한 승부는 싫다.’ ‘장고(長考)로 대변되는 주류 바둑계에 대국 시간을 단축하는 ‘속기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기전 가운데 과격적인 ‘스피드 대국’을 도입한 대회는 지난달 25일 막을 올린 제18회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주최측은 예선, 본선, 도전기 등 모든 대국을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변경하는 등 준 속기(速棋)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신설된 제3의 여류기전인 ‘삼삼 바람’도 ‘속기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제한 시간은 1인당 1시간(초읽기 1분 1회)이었다. 제한시간 3시간을 유지해온 삼성화재배도

인터넷·방송매체 영향 기성전 등 ‘속기전’ 가세 장고 바둑, 흥미·박진감 떨어져 ‘전설 속으로’

지난해부터 각자 제한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는 단축을 단행한 바 있다.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국수전도 올해부터 대국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축소하는 등 속기바둑에 가세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장시간 대국이 이어지면서 흥미가 반감되는 데다 승부마저 박진감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터넷 바둑이 보급되는 등 바둑이 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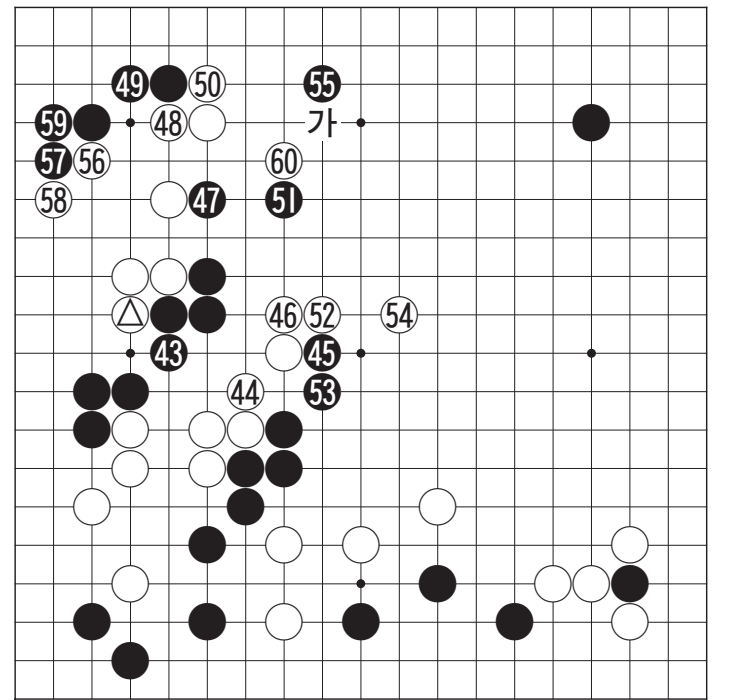
드화하고 있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에서는 초속기 바둑인 ‘10초 바둑’이 대세다. 10초 바둑이란 제한시간 없이 곧바로 10초 초읽기 3회로 대국하는 것을 말한다. 스피드 바둑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프로들은 평소 10초 바둑으로 훈련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리그 주장전에서 9연승의 대기록을 세운 박영훈 9단은 ‘10초 바둑을 통해 감각을 키웠다’고 밝혔다. 2006한국바둑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재용 4단도 인터넷을 주 무대

로 활약했던 스타였다. 을 초 삼성화재배를 들어올린 중국의 웨이하 9단도 속기를 기반으로 성장, ‘속기천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 속기바둑은 방송매체의 영향이 컸다. 지난 1980년 시작된 KBS 바둑왕전이 TV속기를 맨처음 도입했다. 제한시간 10분에 5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바둑TV의 한국리그가 대표적이다. 본래의 명인인 일본의 수사야 9단이 신진 최강자 기타리 미노루와 두었던 은퇴기(1937년)가 제한시간 40시간으로 무려 6개월이나 걸렸다는 신화(神話)는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허 5단 대반격’ 제4보(43~60)

白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시청A)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백 54가 좌변 백 대마의 사활에 승부를 띄워준 적시의 잡이었다. 이강민 5단은 백로 붙여 계속 백의 양곤마를 묶고 늘어졌는데 기세를 높였는지 허우석 5단은 46으로 끝까지 들고 만다. 대마의 접전에서 허우석 5단은 55로 보더니 백 56, 아니라 전국의 주도권 잡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백 46은 늘어진 수로 흑에게 잡을 한방 얻어맞을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뛰고 5가지 두어야 했다. 그러면 백 1 때문에 흑의 움직임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흑 55도 의욕이 지나친 수로 이 수로는 ‘가’에 틈틈하게 두는 것이 좋았다. 허우석 5단은 55를 보더니 백 56, 58로 연타를 날리고 나서 60으로 붙여 대반격에 나선다. 과연 무승 수가 있는 것일까.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뛰! 나보고 예선에 나가라고?



루이 9단, 中 협회 예선 요구에 정관장배 불참

년 3월부터 한국기원 객원기사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가대표출전 규정별 출전 규정에 따라 그동안 중국선수출전했다. 중국 바둑협회 측은 이와 관련, 전년도 정관장배 4승 이상, 또는 최종국승자만 예선을 면제해 준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 루이 9단에게 선발전 출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이 9단의 대회 불참선언은 세계 1인 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기사에게 선발전에 출전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바둑협회의 처우에 대한 서운함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루이 나이웨이 9단도 “솔직히 서운한 점도 있지만, 대표로 뽑혔다고 먼 곳까지 가서 짧은 후배들과 부대끼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여기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은 지난해에도 주장(5번)이 아닌 3번 주장으로 기용되는 등 본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처우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세돌 9단 “한수 보여주마” 이세돌 9단이 지난 달 30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3회 도요타텐소배 4강전에서 일본의 하네나오미 9단과 대국하고 있다. 전기대회 우승자인 이 9단이 16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6일 스타트

세계 바둑 최고수를 가리기 위한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 오픈이 오는 6일 32강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대전 유성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17명, 중국 11명, 일본 4명 등 모

두 32명의 기사들이 출전, 패권에 도전한다. 특히 여성부 신수로 본선 출전권을 따낸 ‘철녀’ 루이나이웨이 9단과 중국의 판웨이징 9단의 활약여부도 관심이 모은다. 와일드카드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노장 서봉수 9단은 벌써부터 바둑 올드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영화안내 (Movie listings for various theaters)

메가박스 (MegaBox theater listings)

해변의여인 (Movie poster for 'The Woman on the Beach')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theater listings)

일본침몰 (Movie poster for 'The Sinking of the Titanic')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theater listings)

씨너스 광주 8개관 (Cinema listings for 8 locations)

건물매도 (Real estate listings for building sales)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s)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listings for family/public agents)

LCE타워(주) (LCE Tower Real Estate listings)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s)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listings)